

社說

포천시민의 종

“포천시 승격의 감격을 영원히 기억하고 후손들이 그녀의 감격을 되새길 수 있는 기념물 제작의 일환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가장 “포천시민의 종”제작 추진에 따른 관계법령 및 타 지역 추진사례를 참고하여 범종제작 추진계획을 보고합니다.”

위 내용은 포천시민의 종 제작에 따른 시민모금운동 추진 계획서 서두다. 포천시가 시민들을 상대로 모금운동을 벌여 범종을 제작하겠다는 것이다. 소요예산을 9억여원으로 세웠다.

그리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포천문화원에 사정을 했다고 한다. 제발 발기만 해달라고 말이다.

포천문화원은 포천시의 간절한 요구에 못이겨 지난 15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포천시민의 종 제작을 발기하기로 결의했다고 한다.

시는 시민 1인당 6천원씩 모으면 9억원의 예산이 마련된다고 계획서에 밝혀 두고 있다.

그러나 포천문화원 일부 이사회들은 포천시의 이같은 범종제작 추진계획에 대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서민경제가 갈수록 추락하고 있는 때에 시민단체의 자발적 참여가 아닌 포천시의 주도하에 추진되는 범종제작에 전 시민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은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포천시는 이같은 분위기에 대해 포천시가 모든 계획을 추진하고 포천문화원은 이름만 빌리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시민 모금운동은 법 시민의 참여에 의미를 두고 있으며 부족한 예산은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추진하는 범종 제작비로 수 억 원씩을 지원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포천시는 예산을 끌어오는데 자신 있다는 입장이다. 몇 십억이라고 말 만 하면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그러나 포천문화원 일부 이사회들은 포천문화원 연간 사업비가 1억7천만원에 불과하며 축제나 축제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편성에 포천시가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갑자기 9억여원 규모의 범종제작 주관단체 역할을 맡으라고 하는 시의 처사에 의아해 하고 있다.

지방자치체는 지역 주민들 스스로 협력하여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주민화합을 위한 새로운 축제를 계획하고 노력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도움을 주고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줄 때 그 뜻이 활짝 빛 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계획하고 시민단체는 형식적인 주관단체로서의 역할만 강조한다면 진정한 지방자치체실시는 요원한 일이 되고 말 것이다.

지금이라도 포천시는 범종제작 계획을 취소하고 시민들의 진정한 문화향상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에 앞장서 지역문화단체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기를 바란다.

스스로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고압적인 자세보다는 참 봉사의 자세로 시민단체를 지지할 때 그 사회는 더욱 건강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1인당 6천원씩 포천시민 15만명분을 모금한다면 9억원이 된다. 이처럼 산술적인 계산으로 시민들을 불모로 삼지 말고 15만 시민들을 위한 참 봉사행정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50%미만으로 경기도에서 9개 시군을 택해 100억원씩 지원하는 대상으로 선정된 포천시가 재정자립도 80% 이상 되는 자치단체도 꿈꾸지 못하는 범종제작에 나서려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심사숙고하길 바란다.

정치활동 동향

**박윤국** 포천시장은 18일 영종농협 강당에서 열린 영북면 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신임 배상균 대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전일 백상규 대장에게 각종 재해예방과 구호활동에 기여한 점을 들어 공로패를 수여했다.

**홍성훈** 포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11일, 13일 백로주 위원회에서 개최된 서울우유 포천시연합 낙우회 가족수련대회, 제19회 포천시 농업경영인 가족수련대회에 참석하여 참가자들을 위로 및 격려했다.

**오병익** 경기도의회 의원은 지난 12일 산정호수에서 개최된 제1회 축산페스티벌 축제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17일 제3회 포천시로타리클럽추진회 청송공원에서 개최된 로타리클럽 게이트볼대회에 참석해 참가 선수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상만** 경기도 의회의원은 지난 16일 동남중학교 운영위원회 주최 학부모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여 학교 발전을 위한 토론 및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17일 소흘읍 솔모루회관에서 개최된 소흘읍 생활안전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유성현** 포천시의회 의원은 19일 민세교리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에 관해 주민들과 대화를 갖고 포천시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포천시의 주민지원책을 확대해줄것을 요구했다.

**강태선** 포천시의회 의원은 12일 고철모이기 시 상식을 개최해 14개읍면에서 고철모이기에 적극 나서 경기도에서 5위를 하는 성과를 거둔 노고를 치하하고 이기고 절약하여 살기좋은 지역을 건설하는데 새마을지도회 회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김중용** 포천시의회 의원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대비해 관내인 수해취약지구를 점검하고 초과2리에 신속중진 문화복지센터 공사장을 방문해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또 지역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다짐을 노력하고자 당부했다.

“진리는 소수가 주장해 다수가 공유”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제11차 정기회의



포천신문 자문위원회(위원장 양주승)가 10일 오후 6시 포천신문 대회의실에서 조대행, 김재동 부위원장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정기회의는 강기홍, 윤장일, 최기권, 김인수 위원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해촉하고 손준상(대전대 경영학과 부교수), 김재현(포천모범전문대학)위원에 대한 위촉을 승인했다.

또, 기타토의를 통해 이효종 교문은 “최효열 발행인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포천신문의 재정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최종규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교문은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다”며 “포천신문 창간때부터 관심있게 지켜본 사람으로서 2-3회 주인이 바뀌면서 이제가 최효열 발행인에 의해 신문발행이 안정되었다”며 “포천사회의 공기로서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대행 부위원장은 “초,중,고 대학을 연계하는 교육시스템 구축과 교육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신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종성 감사는 “공직자중 정백리를 찾아서 시리즈를 게재하여 정직한 공무원을 발굴하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해 어린이 영어캠프를 운영하자”고 건의했다.

김영진 위원은 “모범청소년상을 제정해 청소년들의 위상을 제고하고 포천가족교육클럽을 연계하고 포천가족들의 중국역사기행을 포천신문이 주관해 실시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신문지면 중반이후 칼럼집을 강화하고 오피니언 칼럼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중기 위원은 “로타리클럽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포천신문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장동원 위원은 “이 자리에 참여한 위원여러분들을 존중하고 포천신문 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동 부위원장은 “최효열 발행인이 타지에서

포천에 들어와 포천신문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있어 토박이로서 큰 고마움을 느낀다”며 “힘닿는대로 최선을 다해 포천신문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윤종하 위원은 “포천신문 유료독자 배가 운동에 전 위원들이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조복권 위원은 “포천신문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최효열 발행인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당부했다.

강경만 위원은 “포천신문 임직원은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고 “서로 협조하고 단결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희용 위원은 “경북북부지역의 가장 큰 사업 구역을 커버하고 있고 자문위원 구성이 잘 돼 칭찬받는 것은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히고 “최근 정치적인 지역신문이 나왔는데 이는 정통성 시비에 휘말릴 것”이라고 말했다.

안병호 위원은 “포천신문이 날로 발전하는 것은 자문위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으로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애정과 관심으로 큰 도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토론에 앞서 양주승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1회 포천민속경기와 춘계야유회에 협조 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다”며 “앞으로도 포천신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잘한 부분은 칭찬도 아끼지 말 것”을 당부했다.

최효열 포천신문 발행인은 “그동안 포천신문이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자문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한다”며 “포천신문이 새롭게 추진하는 10대 추진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명복 편집국장이 이날 발표한 포천신문 10대 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

-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역할 강화 ▶포천신문 운영위원회 역할 강화 ▶학생명예기자단 역할 강화 ▶주부명예기자단 위촉 ▶노년위원회 신설 ▶발전위원회 신설 ▶인터넷 포천신문 회원 1만명 확보 ▶조사위원회 신설 ▶포천시발원위원회 신설 ▶독자 1만명 확보

이의수기자 les5682@hanmail.net

의원칼럼

-포천시의회의원 김영오

전반기 의회를 마치며



1991년 4월15일 우리의회가 개원된지도 13년이 넘었고, 청운의 꿈을 안고 지역주민의 지지속에 의회에 등원 한지도 전반기 의회가 끝나는

2년이 되었으니 초선의 의원으로 운영위원장이라는 책임까지 맡고 지난 2년 동안 일을 회상해보면 짧은 기간동안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 같다. 15만 시민의 숙원인 포천군이 시로 승격되었고, 우리 의회 또한 군의회에서 시의회로 군의원에서 초대 포천시 의원으로 1대에 군의원이고 시의원이 되는 일석이조의 행운을 얻었다.

그런가 하면 14명의 의원이 함께 등원하여 불행하게도 3명의 의원이 그만두고 새로운 동료의원과의 의정 활동을 펴게 되었으니 이 또한 우리의회 사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는 시일을 위한 시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함으로 의원 윤리 강령이 있지만 과연 시민을 위하여 얼마나 일을 했는지 의회에 권한을 보면 입법

과연 시민을 위하여 얼마나 일을 했는지 의회에 권한을 보면 입법 제정, 일반시정에 관한 권한이 있지만 과연 이 권한을 잘 이용해서 많은 일을 했어야 하는데 돌아켜 볼 때 부끄러울 정도로 일을 못 한 것 같다.

지역에만 연연 하기 앞서 포천 시민의 대표자로 살림꾼임을 자각한 다고 했지만 많은 예산이 뒤따라 지역주민의 사업성민임을 단 말 건도 해결하지 못하고 뒤로 미룬 채 임기가 다 되어도 우리시 형편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 같다.

옛날에는 모든 사업은 국회의원이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몫이 지방의원에게 돌아온 것 같고 예산을 심의 할 때나 확정할

때 동료의원 간에도 얼굴을 붉힐 때도 있고 때로는 의원의 말 한마디에 몇 억원의 예산이 왔다 갔다 할 때도 참으로 의원의 책임감이 무겁다는 것을 생각하며 재정자립도가 40%도 안 되는 시정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것은 어려운 기정을 꾸러가는 어머니와 같다고 생각 해 본다. 때로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협조도 하고 있지만 요즘도 뇌물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비리를 저지르는 공무원이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의회의 권한을 잘 이용 해서라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본다.

옛 문헌에 국정천심순 관정자민안(國正天心順 官淸自民安)이라는 글귀가 있는데 나라가 바로 서면 하늘도 순해지고 관리가 청렴하면 백성이 스스로 편해짐을 느낀다는 얘기가 있다. 앞으로 정부로부터 지방분권이 되면 많은 업무와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리라 본다.

우리 의회는 더욱 더 노력하고 공부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15만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노력해야겠다.

국법을 만드는 국회에서도 자신의 당의 안전이 아니라 타당의 안전을 무조건 좋던 말 던 반대만 하는 것은 옳은 처사가 아니라고 보는데 지방 의회도 당은 없지만 항상 나의 의견보다는 동료의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회가 되었으면 한다.

또 편을 가르고 편파를 갖는 것은 오직 체육대회에서만 무방할 뿐, 대인관계에서는 편파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덕을 재우는 군자요 재을 덕되는 소인이라고 덕이 재주를 이겨야지 재주가 덕을 이기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보며 끝으로 후반기 의회도 덕망과 포용력을 겸비한 분들이 이끌어 갔으면 한다.

시·정·뉴스

박윤국 포천시장 대만씨즈청년회의소 환대



박윤국 포천시장은 15일, 대만 씨즈청년회의소 및 포천청년회의소 임원진 10여명에게 각종 환영회 및 대만 방문을 받고 환담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정진덕 씨즈C 회장과 루웅네, 리정원 교문, 그리고 포천JC 임원들에게 양국 JC간의 우호, 친선을 바탕으로 상호 지역사회 개발과 경제, 문화, 교육 교류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



포천시는 15일 신북면 외북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 47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세무교실”을 운영했다. 포천시는 미래의 납세자인 초등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세법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어린이 세무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6월 말까지 관내 14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89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윤국 포천시장 2004 체육회 총회 참석



박윤국 포천시장이 2004년 체육회 총회에 참석한 회원들과 악수를 나누며 인사를 하고 있다.

제9회 포천시 여성상 수상자 선정

7월7일 여성회관에서 시상식 계획



▲김경숙 ▲김경순

포천시는 제9회 여성상 수상자로 훌륭한 어머니 이상 부문에 김성기씨(51. 사진)와 봉사부문에 김경순씨(38. 사진)를 선정했다.

포천시는 송고한 부덕(婦德)과 여진 심정으로 건전한 가정을 이루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여성들 가운데 수상자를 선정, 매년 한차례씩 여성상을 시상해오고 있다.

포천시 여성상은 지난 95년 10월 조례가 제정돼 급년에 9회 제를 맞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모두 29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7월7일 오후1시30분 여성회관 3층 정선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경기도 여성상 후보로도 추천된다.

훌륭한 어머니상 수상대상자 김성기씨(소흘읍)는 대장암 수술을 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

포천경찰서, 정지선 지키기 포스터 전시회



포천경찰서(서장 최원일)는 최근 『정지선 지키기』생활화 운동 관련,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들을 상대로 포스터 그리기 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작품을 선정, 청사 현관에 전시했다. 이번 행사는 전체교통사고의 29.2%, 사망자의 21.8%를 차지하고 있는 교차로·횡단보도사고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어린이의 교통안전 교육 및 부모들에 대한 안전의식을 제고하고자 개최됐다.

우수작품은 6. 10일부터 한 달간 청사 현관 안내데스크에 전시될 예정으로, 경찰서를 찾아오는 민원인들에 『정지선 지키기』 홍보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병갑 기자 jpk61@hanmir.com

등록번호 경기 다 50007 2000. 8. 18 등록	<b>포천신문</b>	http://www.ipcs21.com
발행처: (주)한국정보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213-4 고은 B/D 1년 구독료 48,000원		
사훈: 주인의식(主人意識) 정론직필(正論直筆) 문화창달(文化暢達)		
편집국 (031)542-9776 기재부 (031)542-9888 광고접수 (031)542-9889 구독신청 (031)541-9115 FAX (031)541-9117	발행인 겸 대표이사 최호열 편집인 구봉주 편집국장 김영복 인쇄인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주간신문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